

새내기 여러분. 총학의 거짓말에 놀라셨나요?

단대 학생회비가 아닌 과반 학생회비. 새터비는 참가자 전원 부담

총학생회가 대량으로 뿌리고 있는 유인물에는 “새내기 여러분 올해도 16만원 내셨나요?”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글에서는 ‘매년 새터비 8만원, 단과대 학생회비 8만 원을 새내기들에게만 걷어서 쓰고 있다’는 무서운 말로 단대 학생회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회칙개정안의 내용인 중운위의 권한제한과 총학생회로의 권력집중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반의자에 앉아 친구들과 노닥거리기도 하고 잠도 자고 시험 기간에는 열심히 공부도 하는 여러분이라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1. 총학생회에서 말한 단과대 학생회비 8만원(사실 대부분 6만원입니다)은 단과대 학생회비가 아니라 과반학생회비입니다. 몇몇 단대는 과/반에서 직접 걷으며, 몇몇 단대는 단과대에서 대신 걷어서 과/반에 고스란히 주는 돈으로 단대학생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과/반 운영체제를 잘 모르시는 총학생회장님이 착각을 해도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총학생

회야 학교에서도 9천만원이나 지원받고 또 전체 학생들로부터 학생회비를 받으니까 OT에서 수천만원 예산을 물 쓰듯이 쓰고도 남아돌 정도이고, 그래서 200만원 정도의 예산 횡령의혹은 별것도 아닌 일에 호들갑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반 공동체의 친목을 위해 엠티도 가고, 교양학교도 하고, 환영회도 하고 1년 동안 수많은 활동들을 한 꾀의 지원도 없이 해내야 하는 과/반 학생회는 구성원들의 돈으로 한해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내기에게만 돈을 받는 것은 무슨 비리 같은 것이 아니라, 학부제에서 2학년 이후에는 돈을 걷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며, 새내기 때 한번 내면 다시 내지 않아도 졸업할 때 까지 과/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재정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2. 과/반 학생회비 내지 않아도 당연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자치 활동을 하는데 돈을 안낸다고 해서 사법처리 같은 것을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내가 생활하는 공동체에 필요한 비용이

라면 구성원으로서 재정 부담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내기 학우들에게 총학생회가 “사실 그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야”라고 하는 것은 참 입에 담기 민망한 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새터비는 새터에 가는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새내기뿐만 아니라 참가자 모두가 내는 돈입니다. (미리 걷은 경우 새터 참가를 안 한 사람에게는 돌려줍니다.) 새터는 숙박, 주류비등을 포함하여 일인당 비용이 엄청 납니다. 총학은 재정이 풍부하여 하루 잠만 하는 오티를 무료로 해 줄 수 있을지 모르나, 2박3일 짜리 단대 새터는 무료로 하기에 단대학생회비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혹시 총학생회는 새터를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학생들의 소중한 1만원의 학생회비를 아까운 줄 모르고 쓰는 총학생회, 과반 재정 구조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사실관계가 틀린 정보를 유포시키며, 과/반 학생회비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는 총학생회. 회칙이 개정되면 과/반 학생회비마저 총학생회 집행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개정안 통과되면 과반학생회비마저 총학 집행부가 좌지우지

깜찍 인터뷰! 지나가던 새내기에게 물었습니다!

Q. 총학생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학생회관이랑 중앙도서관 앞에 다른 단체들이랑 싸우는 것은 보았는데요. 딱히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Q. 총학생회 회칙 개정을 위한 총투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A. 알고는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투표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온라인투표

최초의 온라인 투표. 시범 운영도 없이 총투표에 적용

온라인 투표의 구체적인 방식은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요?

투표 방식은 투표관리 위원회가 결정하였습니다. 투표 관리 위원회는 온/오프라인 투표 방식을 두고 논의했고, 대리투표 방지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관리 위원회는 회의록과 결정 사항들을 바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학은 27일 금요일, 사실상 투표를 하루 앞두고 투표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 투표에서 충분히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설명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국회도 온라인 투표를 못했는데, 과연 안전할까요?

온라인 투표는 대리투표, 결과 조작, 서버 관리 등등의 문제가 기술적으로 완벽히 해결되지 않아 믿고 투표하기 위해 검증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 기관에서도 온라인 투표의 선례가 없지요. 총학은 온라인 투표 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학생들에게 여러 번 확인 받아야 합니다.

총학은 온라인 투표를 어떻게 준비했나요?

많은 과반/단대회장들이 온라인 투표의 문제점을 우려하여 2차례 이상의 공개적인 시범 운영을 제안했으며, 대리투표 문제에 대비하여 총학 스스로도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에 근거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약속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오프라인 투표가 가진 개표시의 불편함을 덜고 투표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투표에 대한 정확성, 공정성을 확신할 수 없을 때엔 오히려 불미스러운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우들의 우려가 많은 가운데, 총학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표를 행사하기에는 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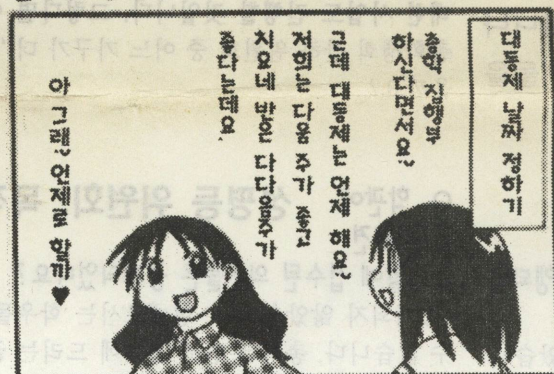
이번이 처음인 온라인 총투표, 무엇을 더 점검해야 할까요?

투표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투표의 공정성은 서버 제작과 관리에 있습니다. 서버의 제작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검증을 거쳐 선정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동시에 서버가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 관리되는지 역시 공정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서버 관리자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해킹 위험에서 자유로운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 서버를 타고 들어와 각종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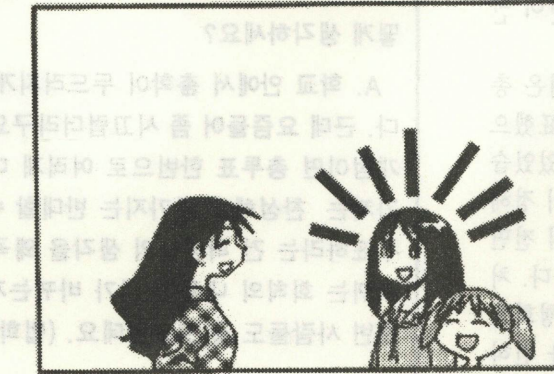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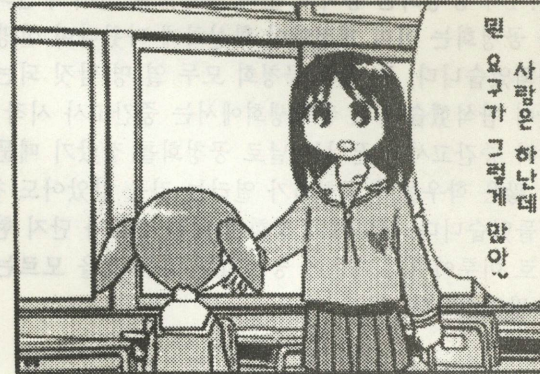
가장 안전하게 한표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투표보다는 믿을 수 있는 오프라인 투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얼굴 도장이 가장 확실하니까요.^^ 총학생회는 오프라인 투표 준비를 갖추고, 온라인 투표에 대해 여러 차례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온라인 투표의 공정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총투표 직전에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부정투표를 막을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결정은 총학이 다 하면 그만인데 뭐 1



결정은 총학이 다 하면 그만인데 뭐 2



총학생회 어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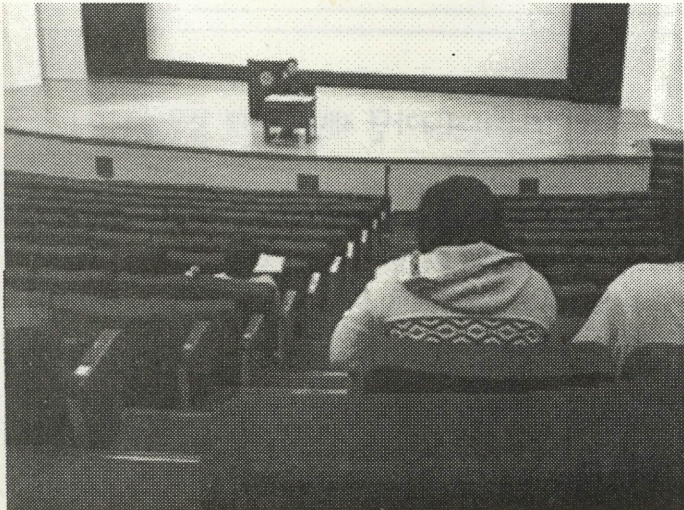
- ▷3. 15 - 이건 세계적인 상식입니다.
- ▷4. 18 - 잘못은 인정하나 사과문은 쓸 것 같지 않습니다.
- ▷4. 23 - 투표율 조작이요? 안 할게요.
- ▷4. 25 - 잘못은 인정해도 아니, 반성문 쓰는 것도 아니고 사과문이 뭐예요.
- ▷4. 26 - 투표율 고려 없이 찬반만 가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학. 학우들을 대변하나요? 아니면 이용하나요?

무시에서 우롱까지 - 총투표



행사 24시간 전에 공지되고 회장 밖에 아무 선전물도 없는 등의 총학생회의 무성의한 홍보와 시험 바로 전날이라는 열악한 조건으로 무산되었던 1차 공청회. 하지만 총학생회는 학우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것은 총학생회의 책임이 아니며 열명 남짓의 사람이 모였어도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발언만 되풀이했다. 공청회의 무산은 총학생회의 책임이 아니냐 총학생회가 회칙 개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의지가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

Q. 회칙 개정에서 공청회가 있었다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결국 총학생회는 한번도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1차 공청회는 총학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2차 공청회는 이미 개정안이 확실하게 나왔다고 설명하며 전락되었습니다. 두 번의 공청회 모두 열 명 남짓 되는 학우들만이 참석했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중간고사 시작 바로 전날과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로 공청회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학우들이 공청회가 열리는 것을 알았어도 참석하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공청회에 대한 홍보가 단지 현수막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 것을 모르는 학우들도 많았습니다.

Q. 1차 공청회는 왜 무산되었나요?

총학의 무성의한 홍보와 준비로 참가자가 적었고, 그나마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총학의 태도에 실망하고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총학이 준비한 1차 공청회에는 내용을 기록할 어떠한 장비나 학내 언론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는 “많은 학우 여러분이 모이지 못한 것은 총학생회 책임이 아닙니다. 준비가 미흡한 것은 인정하나 사과할만하지 않다.”는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은 연세인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듣고자 노력하지 않는 총학생회입니다.

Q. 무산된 공청회나 설명회의 결과가 회칙 전면 개정안이 반영됐나요?

아닙니다. 1차 공청회에 회칙 개정안 ver. 1.9를 가져온 총학은 공청회가 무산된 직후 같은 내용의 ver. 2.0을 발표했으며, 그 후에 나온 ver. 3.0은 오차 수정 정도의 변화만 있었습니다. 결국 공청회와는 아무 상관없이 새 회칙의 내용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총학생회 회칙 전면 개정안을 수정하겠다는 총학의 말은 또 말 뿐이었습니다. 처음에 붙인 이름만 ‘공청회’였을 뿐, 총학생회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반영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Q. 성평등위원장 임명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길래 편향적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회칙이 개정되면 성평등위원장은 학운위를 통해서 임명하고, 학내 여성주의소모임 또는 여학생처의 추천을 받은 총학생회 회원 중에서 정하게 됩니다. 게다가 학내 여성주의 소모임은 후보자를 추천하기 이전에 중운위에 그 목적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검사받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과연 이 과정에서 편향된 사람을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자치단위의 활동과 성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검열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편향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Q. 성평등위원회가 여학생들의 휴게 공간 확보에 신경 쓸까요?

아닙니다. 여학생 휴게실은 단순히 ‘모든 여학생 휴게실 온돌화 약속’과 같은 과시하기용 공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과대 여학생 휴게실의 특성과 직접 이용하는 학우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대 여학생 휴게실은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이용하는데, 온돌화하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또, 총학생회는 성평등 위원회가 앞으로 총여학생회가 진행하던 사업을 모두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학생 휴게실에 대한 사업도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학생이 뽑은 학생회와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 중 어느 기구가 더 ‘강력한 추진’을 할 수 있을까요?

Q. 학관에 성평등 위원회. 목적은 성평등인가요? 아니면 총학생회 권력집중인가요?

수렴함에 접수된 의견들은 공개되었나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학우들의 의견이 어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총학은 연세 사회에 드리는 글을 발표하면서 의견 수렴함에 넣어진 의견들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며칠 동안 진행된 의견수렴과,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청회보다 ‘깜짝 인터뷰’를 통해 여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Q. 총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총투표가 3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총학게시판에는 온라인투표에 대한 시행세칙만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고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은 찾을 수 없습니다.

Q. 개정안 통과되면 총학생회 집행부의 권한이 커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총학생회 회칙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총학생회 집행부의 권력은 현재보다 훨씬 강력해집니다. 총학생회 집행부가 사업을 계획하거나, 재무편성, 또는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원래는 감시해야 할 단과대 학생회장은 자료를 열람하고 문제를 ‘발견’할 수만 있습니다.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학운위를 열어, 인준해야 합니다. 학우들이 직접 뽑은 학생회가 자

총학생회는

의견수렴 X
자치권 존중 X
사업심의 X

∴ 학우들과의 괴리

신들이 대표하는 단위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학운위를 열고,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만 가능한 반면, 임명을 통해 활동하는 학생회 집행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을 회의록을 통해서만 공개하면 되는 기형적인 학생회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Q. 총학생회 학생회비 사용을 어떻게 잘못했는데요?

학생회비는 중운위에서 의논하여, 각 기구마다 비율로 나누는 학생회비와 사업별로 신청할 경우 지급되는 ‘특별 공동 예산’으로 나눠집니다. ‘특별 공동 예산’을 사용할 사업의 경우, 중운위에서 학생회비를 쓸만한 사업인지 예산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언제나 사용하기 전에 예산을 검토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끝나고 2-3주 후에 결산을 가져왔습니다. 중운위원들이 다음부터는 예산을 먼저 가져와달라고 건의해도 총학생회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는 대답만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비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지 않

은 채로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새터를 위해 주류 공동 구매를 추진했을 때는 몇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중운위원들이 찾아내서 소중한 학생회비의 손실을 막았습니다.

Q. 그렇다면 200만원 횡령 의혹은 대체 무엇인가요?

총학생회의 엉성한 준비로 중운위원들은 OT가 끝난 이후의 ‘결산’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운위원들은 사용된 OT 비용이 보통 진행되어왔던 행사 비용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학생회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문제제기하였습니다. 그 때 총학생회는 이미 영수증까지 모두 받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원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돈을 ‘줄여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 행사 비용에서 ‘악기비’ ‘추가 섭외비’ 등이 빠지며, 200만원이 줄어든 영수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알고보니 ‘악기비’와 ‘추가 섭외비’ 등의 명목으로 청구된 비용이 그 공연기획사의 수고비였고, 이미 총학생회는 행사 기획사에 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전화통화 한 번으로 200만원이 줄어든, 엉뚱한 명목으로 비용이 청구되고, 돈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OT 결산 뿐만이 아니라 이미 확대간부 수련회, 새터 주류 공동 계약 등에서도 반복되어왔던 총학생회의 ‘실수’였습니다. 중운위원들은 앞으로 총학생회가 계속해서 학생회비를 몰수듯이 쓰지 않을까 우려하였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내부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당시 (집행위원장님이 아닌) 집행위원장을 준비하시던 분이 학운위에서 집행위원장 인준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신 총학생회장님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 글을 발표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깜짝 인터뷰! 지나가던 남학우에게 물었습니다.

Q. 총학생회의 총학생회 회칙 개정을 위한 총투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학교 안에서 총학이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근데 요즘들어 좀 시끄럽더라고요. 회칙을 바꾼다는데 전면 개정이면 총투표 한번으로 여러개 다 바뀌는 것 아닌가요? 몇가지는 찬성해도 몇가지는 반대할 수 있는건데 몽땅 한꺼번에 투표하라는 건 학생들의 생각을 왜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바뀌는 회칙의 내용이 뭐가 바뀌는지 설명도 잘 안 되어서 제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던데요. (법학 04 정현수)